



동방경제포럼 뉴스

동방경제포럼 현장에서 로스투리즘과 로스콘그레스는 비즈니스 관광 개발에 대한 협정서 체결 예정. 로스투리즘 사프로노프 대표에 따르면 대규모적이고 양질의 이벤트들과 국제적인 행사들이 러시아의 이미지를 현대적이고 권위 있는 국가로 형성시키고 있으며 세계 업계 정계 프로세스에 조화롭게 통합되고 있다. (Russiatourizm.ru)

포럼 기간 중 국민안전처는 강화된 체계로 보안을 책임질 것이라고 러시아 연해주 국민안전처 페듀라 부장이 밝혔다. EEF를 하루 앞두고 구조원들은 행사에 사용될 시설과 문화 기관, 참가자 숙소 등의 안전과 소방 기준 부합 여부를 검사했다. (IA "Oreanda-Novosti")

극동의 뉴스

일본 기업 Mitsui&Co는 러시아와의 이커머스 분야 협력 확대에 관심을 밝혔다. 현재 본 기업은 러시아에서 17개의 프로젝트를 에너지, 기계생산, 인프라, 소비용품 등 분야에서 실행하고 있다. 본 기업은 이미 2개의 프로젝트가 올해에 투자되었으며 대 러시아 투자 규모는 30억 달러를 초과한다고 밝혔다, ("Tass")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는 국제 어민 콘그레스가 개최될 예정이며 주제는 "어업 분야 발전을 위한 국가지원 메커니즘"이다. 본 행사 차원에서 어업관련의 새로운 법률안 대한 원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Fishnotice.com)